

생산·제조현장 전문가... 글로벌 '메이저 식품사' 만든다

유통·식품업계 새 얼굴

김동찬 삼양식품 대표

5년 연속 해외매출 최대 실적을 경신해나가고 있는 삼양식품은 미래 신성장 사업 육성과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해 힘쓰고 있다. 지난해 비전선포식을 통해 그룹의 규모 성장과 사업 포트폴리오 다각화 등 혁신성장을 발표하기도 했으며, 이보다 앞서 신임 각자 대표이사에게 김동찬 생산본부장을 선임했다. 삼양식품은 김정수 부회장과 김동찬 각자 대표이사 체제로 경영이 이뤄지고 있다.

김동찬 삼양식품 대표이사는 경희대학교 식품공학학과를 졸업하고 롯데제과(현 롯데웰푸드) 공장장을 거쳐 2016년 삼양식품에 입사했다. 이후 2017년 익산공장장, 2020년 삼양식품 면스내 부문장을 역임하고 2021년부터 삼양식품 생산본부장을 맡아왔다.

김 대표, 2016년 삼양식품 입사 현장경험·전문지식 갖춘 베테랑 품질 강화 등 경쟁력 확보 주력

삼양식품은 김 대표이사가 생산부문에서의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밀양2공장 건설 총괄은 물론 품질 강화 및 원가 절감 등을 통해 삼양식품의 지속적인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힘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삼양식품의 해외매출 비중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지난해 해외 매출액은 전년 대비 34% 증가한 8093억원을 기록했다. 전체 매출에서 해외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68%다. 해외법인과 수출전진기지인 밀양공장의 시너지 효과로 수출 물량이 크게 증가하며 실적을 이끌었다.

수출 시장과 품목도 다변화됐다. 미주지역과 EMEA(유럽·중동·아프리카) 지역 매출 비중이 각각 20%대로 확대되면서 아시아 지역에 집중됐던 매출 비중이 개선됐다. 소스부문 수출액도 전년 대비 35% 늘며 꾸준한 성장세를 보였다. 주요 수출 품목인 불닭소스는 현재 40여개국에서 판매되고 있다.

삼양식품은 가파른 수출 성장세를 뒷받침하기 위해 1643억원을 투입해 밀양2공장을 건설하고 있다. 2022년 밀



김동찬 삼양식품 대표

김동찬 삼양식품 대표 주요 약력

- 1968년생·경희대학교 졸업
- 2016. 롯데제과 자문역
- 2016. 삼양식품 입사
- 2017. 삼양식품 익산공장 공장장
- 2019. 삼양식품 스프/조미부문 부문장
- 2020. 삼양식품 면/스내부문 부문장
- 2021. 삼양식품 생산본부장
- 2023.08~ 삼양식품 대표이사 (現)

양1공장 완공 후 2년만에 착공에 들어간 것.

밀양2공장은 연면적 3만4576㎡에 지상 3층·지하 1층 규모로, 총 5개의 라면 생산라인이 들어설 예정이다. 2025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완공시 삼양식품의 연간 최대 라면 생산량은 기존 18억개(원주, 익산, 밀양1공장)에서 약 24억개로 증가하게 된다.

김 대표이사는 공장장과 생산본부장 등 오랜 현장 경력을 바탕으로 삼양식품을 글로벌 메이저 식품으로 도약할 수 있게 힘쓸 전망이다. 밀양2공장 건설 총괄은 물론, 제조와 품질에 대한 이해도 빠르게 파악 가능하다.

밀양2공장 총괄... 생산혁신 방점 자동화·효율화·지능화 설계 도입 미주시장 등 수출 전초기지 활용

밀양2공장은 생산 혁신에 초점을 맞춰 신속한 대량생산과 자동화, 효율화, 지능화 관점에서 보다 진화한 설계를 도입한다. 김 대표이사는 생산·제조 현장 특유의 문화에 대한 이해도도 높을 뿐더러 오랜 시간 현장 직원들과 소통했기에 업무 경영 효율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9월 서울 종로구 누디트릭션에서 열린 삼양라면 출시 60주년 기념 비전선포식에서 그룹 공식명칭 변경을 기념하는 촬영을 하고 있다. (가운데줄 왼쪽부터) 정우중 삼양애니 대표이사, 전병우 삼양라운드스퀘어 전략기획본부장, 김정수 삼양라운드스퀘어 부회장, 김동찬 삼양식품 대표이사, 김홍범 삼양스퀘어랩 연구소장, 김명진 삼양식품 CMO. /뉴시스

삼양식품은 밀양2공장은 완공 후 미주 시장을 겨냥한 전초기지로 활용할 예정이며, 밀양1공장은 중국 시장을 기반으로 수출 불륨을 늘려갈 계획이다. 또한 밀양시와 동반 성장하는 상생의

발판이자, 지역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삼양식품은 지난 2022년 5월 밀양1공장을 완공했다. '불닭볶음면'의 세계적인 인기로 힘입어 전체 매출액은

▲2021년 6420억원 ▲2022년 9090억원 ▲2023년 1조1929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022년 식품업계 최초로 '4억불 수출의 탑'을 수상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Fighting!

생명보험이 100세 시대를 뛰는 당신의 삶을 응원합니다.

위기가 왔을 때 가장 빛을 발하는 금융, 생명보험으로 준비하세요!
100세 시대를 맞이하여 종신까지 든든한 생명보험이 삶의 여유를 드립니다.
혜택도 보장도 평생 든든한 생명보험이 함께 합니다.

생명보험협회
Korea Life Insurance Association



삼양식품 본사 전경

/삼양식품